

익산 고도육성 사업 탄력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등 국비 125억원 확보

익산시가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등 국비사업 확보를 통해 고도육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고도(古都)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익산 고도육성 사업으로 국비 12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익산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국비 70억 8800만원),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사업(국

비 46억 9000만원),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국비 7억 8000만원)으로 22년도에 국비125억5800만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79억 원을 투입된다.

익산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은 방문자 센터, 역사관, 교육장, 주민참여 공간 등 고도 통합지원센터가 들어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유적 간 연계한 환승시설 등으로 국·내외 방문객의 편의증진 및 금마 고도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사업은 백제 무왕의 탄생설화가 있던 마룡지와 서동생가터 주변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백제왕도 익산의 정체성을 확립 할 것이며,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주민들에게 한옥 지원 등으로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통해 차별화된 고도(古都)의 이미지를 회복할 전망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장은 익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여 고도익산을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의 대표축제인 '2021년 익산서동축제'가 가을 담은 피크닉 같은 낮 풍경과 함께 달빛 가득 호수의 몽환적 분위기의 밤을 선사하며 이색 야간 데이트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역 소식통

군산시, 나눔 캠페인 사랑의 열매 달기 동참

군산시는 '사랑의 열매 달기'를 시작으로 '희망2022 나눔캠페인'에 동참한다고 17일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희망2022 나눔캠페인'은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라는 슬로건으로, 나눔문화 확산과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회복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사랑의 열매 달기, 강임준 시장 캐리커처 전달, 차량 및 월동난방비 기탁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수 회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랑의 열매 달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시 감사드립니다"며 "올해도 군산시민의 나눔 온도를 따뜻하게 올려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 천만송이 국화분산전시회, 일부구간 연장전시

21일까지 가을꽃 정원 · 28일까지 서동공원

익산시는 2021 익산 천만송이 국화 전시회를 가을의 정취를 더 즐기고자 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일부 구간 전시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021 익산 천만송이 국화 전시회가 지난 15일 성황리에 종료됐으나 워드코로나 단계 조정에 맞춰 나들이를 즐기는 관람객들을 위해 가을꽃정원은 오는 21일까지, 서동공원은 28일까지 전시기간을 조율했다.

가을꽃 정원은 신흥근린공원 내 행복정원과 함께 신흥저수지를 따라 조성된 볼레길로 국화를 비롯해 코스모스, 꽃백일홍, 아스타 등 가을꽃과 함께 국화 조형물, 각종 포토존, 토퍼 리 등을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가족, 연인들의 가을나들이 코스로도 지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현장 학습 체험장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서동공원은 서동축제가 끝나는 28일까지 백제연등과 어우러진 국화작



익산시는 2021 익산 천만송이 국화전시회를 가을의 정취를 더 즐기고자 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일부 구간 전시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품과 국화를 전시해 익산의 대표 축제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국화전시회를 즐기지 못한 시민들의 아쉬움을 달랠 예정이다.

한편 익산시는 2021 익산 천만송이 국화전시회는 코로나 19의 전국 확

산 방지를 위해 취소하고 정원을 테마로 익산시 주요 도심 16개소에서 10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시회로 진행해 당초 폐막 당일인 15일까지 총 21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익산=이득훈 기자

LED 돛배 등 야경 '큰 호응'

익산서동축제, 수상공원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

익산시의 대표축제인 '2021년 익산서동축제'가 가을 담은 피크닉 같은 낮 풍경과 함께 달빛 가득 호수의 몽환적 분위기의 밤을 선사하며 이색 야간 데이트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익산시 서동공원 일원에서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2021 익산서동축제가 익산과 서동축제만의 이야기를 담은 백제유등 전시 연출로 화제다.

서동의 탄생부터 서동 선화의 사랑 이야기와 무왕의 응지를 담은 다채로운 색채와 모습의 유등이 낮과 밤을 아우르며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백제의 이야기를 선물한다.

해상왕국 백제의 꿈을 보여주는 금마저수지 LED 돛배와 축제장을 아름답게 밝히는 야간경관 산책로가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이끈다.

특히 유등 전시의 마무리 길에 무왕의 꿈을 형상화 한 곳에서는 수능 기말시험 임용, 입시 등을 준비하는 축제장을 찾은 이들의 다양한 꿈을 담아낸 소원 배 띄우기와 청사조롱 소원등

터널에 소원지 달기 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엔 금마저수지를 활용한 수상공원이, 매일 밤 서동장에선 서동요 그림자극 공연이 운영되어 다양한 장르의 볼거리로 남녀노소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와 일상로의 회복을 소망하며 긴 시일 야간경관 전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환기를 맞아 주말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들을 마련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익산서동축제는 축제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아름다운 경관으로 힐링받는 공간인 동시에 서동의 탄생 선화공주의 사랑, 백제 무왕으로 성장이라는 대서사를 마주하며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다짐하는 장소로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백제왕도 익산의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는 서동축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온·오프라인 가족사진 전시회 열려

군산시는 오는 2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슬기로운 가족생활 사진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일상을 지켜 준 가족, 고맙습니다.'의 주제로 한 달간 추진된 이번 공모전은 총 38가족 67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1차 심사 31개 작품 선정, 2차 전문가 심사 및 온라인 시민투표에서 13개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워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통해 가족과의 행복한 일상을 회복하는 의미로 기획된 이번 전시회에서 최우수상 '사랑해, 동생아'를 비롯해 수상작 13점 및 공모전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의 댓글도 감상할 수 있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의 저출산 인식이 개선되고, 지난 2년간 코로나를 함께 이겨내 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 워드 코로나 속 가족과의 행복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2022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비 3배이상 확보

군산시는 오는 12월 16일까지 2022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3,200만원이던 청년 어촌정착 지원예산이 오는 2022년에는 1억 1,7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증액됐으며 선정인원도 기존 3명에서 2022년 11명(예정)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창업초기 청년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해 어촌 이탈을 방지하

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40세 미만의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인 자로 군산시에 본인 명의의 어업경영을 기반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어업인과 2022년 귀어창업 예정자다.

우선순위는 2021년도 사업대상 선정자(1~2년차), 귀어 어업인, 후계 어업 경영인, 현지거주 어업인,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예정자 순이다.

선정된 청년어업인은 어업경영 경

력에 따라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으로 구분해 경영비 및 어가 기계자금을 차등 지원받게 되며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어촌에 우수한 청년인력을 유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챌린지' 동참

정현을 익산시장이 17일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챌린지'에 동참했다.

'생활속 에너지 절약 실천 챌린지'는 시민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고, 퇴근 후 야간에 낭비되는 냉·온수기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고,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온난화 예방에 동참하는 물론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의 지명을 받은

정현을 익산시장은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냉온수기 OFF 환경 ON이라는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생활속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중립을 이루기에 익산 시민도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정현을 익산시장은 챌린지 후 발주자로 박성일 완주군수를 지목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